



푸른 제주, 하나가 된 군포예총 식구들

- 2016 군포문화예술인 워크숍

김동균(음악협회 사무국장)

2016년 11월 1일 군포예술인워크숍을 제주도로 떠난다 하여 10월 31일 월요일 밤 중국에서 귀국했다. 집에 도착하니 밤12시가 되었다. 처음 가는 제주도라 설레기도 했지만 새벽 5시 30분에 모여야 하는 집합시간 때문에 새벽에 세 번이나 깨서 시계를 확인하는 바람에 잠을 설쳤다.

새벽 5시 20분 출발장소인 군포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도착하니 사진협회 지부장님과 회원, 무용협회 회원들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11월의 새벽이라 그런지 아직 어둠을 내몰진 못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과 대치하고 있었다. 새벽의 바람은 저절로 몸을 움츠리게 했다. 5시 30분이 지나니 다른 지부 회원들이 속속 도착했고 서로들 인사를 나누기 바빴다. 곧이어 군포시청버스가 도착하였고, 김포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모두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 군포시청 예술팀 유승연 팀장의 진행으로 오늘의 워크숍의 취지와 이억재실장님, 강희진 회장님을 필두로 군포예술인워크숍에 참가하는 회원 모두의 파이팅과 기대, 소감을 들었다. 아침으로 나눠준 김밥과 물을 먹는데, 어느덧 버스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진행을 돕는 김정화 여행사대표도 동행하였고 출발 전 서류를 챙기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였다. 군포시가 낳은 사회자이며, 남자 회원 중 유일하게 캐리어를 가지고 온 안재덕 회원은

현장탐방 | II.문화예술인 워크숍

공항 패션에 너무 신경을 쓰다 신분증을 안가지고 왔다. 그래서 부랴부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무사히 티켓을 받을 수 있었다.

보안검색과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안에 들어서니 모두들 들뜬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안 되니 거의 모두가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일정이어서 그런지 나뿐만 아니라 모두들 잠을 설친 모양이었다. 나도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데 잠결에 옆에 앉은 이승훈 회원이 승무원에게 커피를 부탁하자 한 잔에 이천원이라고 했다. 비행기에서 주는 음료가 무조건 무료는 아닌가 보다. 제주도 상공에 이르니 비행기 착륙준비를 하다는 안내방송이 흐르고 모두들 잠에서 깨어났다. 비행기의 흔들림이 심하게 일어났다. 높은 곳에 있는 긴장감과 놀이기구를 타는 느낌이 잠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잠시 걱정을 뒤로 하고 비행기는 무사히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 공항 로비 쪽으로 나오니 키가 큰 가이드 한 분이 군포시청문화예술인이란 낱말을 들고 서있었다.

8시30분 관광버스를 타고 첫 번째 코스로 출발했다.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50분 정도 걸린다고 오메기떡을 준비해 주어서 맛있게 먹고, 가이드의 입담에 모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제주도의 땅값”, “제주도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소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제주공항의 역사 등 여러 가지 제주도의 이야기로 약 50분간의 이동 시간을 즐겁게 해 주었다. 9시 30분 버스는 주상절리대에 도착하였다. 새벽 군포에서 느꼈던 쌀쌀함은 사라지고 제주도에서 느끼는 바람은 따듯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쌀쌀했다. 한 시간의 견학 시간이 주어졌다. 바닷가 주상절리를 보러 입구에 들어서니, 돌고래 석상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커다란 소라 석상은 사진 찍기에 편하게 만들어 놓았다. 주상절리 전망대에서 자연의 위대함과 예술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주상절리대는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대포동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2km에 걸쳐져 있고 약 25만년에서 14만년전 사이의 ‘녹하지역’ 분화구에서 흘러온 용암이 식으면서 형성된 것이다. 기둥모양으로 쪼개지는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지고 대체로 5~6각형의 기둥형태가 흔하다고 한다.

이곳 주상절리대 관광지에는 주상절리 말고도 공원과 조각품이 있어 사진 찍고 추억을 만들기 좋게 꾸며 놓았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표정으로 셀카와 서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초면의 어색함이 조금은 사라졌다. 아름다운 자연과 여행의 설렘이 모두를 순수하게 만든 것 같다. 약 1시간의 관람을 마치고 10시 30분 그린정 식당에 도착했다. 예정은 11시 30분에 식사 시간이지만 주상절리에서 1시간 정도로도 관람을 마칠 수 있었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은 따뜻했지만 제주도의 바람은 매서웠다. 가이드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금 이른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다. 식사 메뉴로 고등어조림이 나왔는데 싱싱하고 맛이 좋았다. 식사 도중 장석기 전 예총회장의 성공적인 워크숍과 군포문화예술인의 발전을 축하하는 축사와 함께 제주도 특산물 감귤막걸리 또는 한라산소주로 축배를 들었다.

맛있고 이른 점심을 먹고, 11시 30분 외돌개뚝배낭골에 도착했다. 이곳부터 제주올레길 7코스를 향하여 출발했다. 새벽의 피곤함은 든든한 뱃속과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으로 모두 사라졌고 일행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운 듯했다. 외돌개뚝배낭골길 왼쪽으로 소나무의 향기가 풍기고, 오른쪽으로는 바닷바람과 함께 수평선의 시원함과 사파이어 빛깔의 파란 바닷가를 온몸으로 느끼며 걸었다. 식사를 하고 난 후라 적당한 포만감이 느껴지고 평지길이라 운동도 되고 자연의 기운을 받고 걸으니 도시에서 느꼈던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졌다. 회원들은 핸드폰으로 서로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사진지부장 성주희, 임효례 회원의 카메라로 단체사진도 찍었다. 시간이 지나며 초면의 어색함은 점점 친숙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흔히 제주도 하면 돌, 바람, 여자가 대표적이는데 그 중 돌과 바람이 온몸으로 체험되는 순간이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다면, 몸이 날아 갈 것 같은 강한 바람에 온몸이 흔들거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람 한 점 없는 따뜻한 가을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걸었다.

돌로 만든 길을 1시간 정도 외돌개 트래킹을 마치고 12시 30분 이중섭거리에 도착하였다. 화가 이중섭이 한때 작품 활동을 했던 곳을 방문하였다. 불과 방 1.4평, 부엌 1.9평 남짓한 곳에서 아내 이남덕과 자녀 태현, 태성과 함께 1951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활하며 지낸 곳을 보니 생활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중섭을 기념하기 위해 이중섭 거리를 만들었지만 주위의 예술거리의 모습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 우리도 예술가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예술가로 남고 싶은데, 경제력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한 이중섭의 모습을 보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중섭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고뇌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는 도중의 행복감이 공감되어 혼란스런 마음을 잠재웠다.

오후 2시 40분에 쇠소깍에 도착했다. 쇠소깍은 효돈천 하구(깍)에서 솟아나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깊은 웅덩이를 이룬 곳이다. '쇠'란 지금의 효돈의 옛 지명에서 유래한 지명이 결합된 이름이다. 이곳을 구경하면서 함께 간 예총식구들은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고 있었다. 군포예총 소속으로 모여 있지만 각기 다른 지부사업을 진행 하다 보니

현장탐방 | II.문화예술인워크숍

서로를 알 수 있는 여건이 부족 했었다. 아침에 모여 불과 10시간 만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모습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 자연을 매개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오후 4시 20분 저녁 식사를 위해 흑돼지 오겹살 식당에 도착해서, 모두들 즐겁고 맛있는 식사를 하였다.

저녁 7시 숙소인 한화리조트에 도착해 짐을 풀고 7시 40분부터 문화예술인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익재 실장님과 유승연 팀장님은 군포예총 각지부가 고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고 군포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앞으로 각지부의 애로사항과 시청간의 협조를 위한 회의를 차기에 열기로 하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와 함께 예술인들과 시청담당자들과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11월 2일 수요일 아침 8시, 워크숍의 두 번째 날이다. 모두 아침 일찍 기상하여 세면하고 2일차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주차장에 모였다. 여성회원들은 어제와 같은 모습인데 나를 포함한 몇몇의 남자 회원들은 어제의 상큼한 모습에서 살짝 벗어나 피로가 싸여있는 모습이었다. 오전 9시 아침식사로 제주본가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국물이 얼큰하면서도 시원해 어제 일정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9시 20분 다랑쉬오름에 트래킹을 위해 도착했다. 다랑쉬 오름은 '비자림'과 '용눈이오름' 사이에 우뚝 솟아 있는 오름이다. 다랑쉬 오름으로 트래킹을 하러니 회원 모두 시작의 마음은 가볍지 못했다. 그런데 중간 정도 올라서니 일출봉과 우도 등 넓은 수평선을 보면서 모두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나무로 만든 계단과 밧줄 계단을 20분 정도 오르니 정상이었다. 정상에서의 풍경은 더욱 경이롭고 탁 트여 시원하고 좋았다. 그런데 가이드가 다랑쉬 오름 분화구 주위를 둘러보면 더욱 좋고 제주도의 풍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에 회원들은 대부분 분화구 둘레길을 향해 출발했다. 처음 경사진 곳을 약 10분 정도 오르니 다랑쉬 오름에서 제일 높은 곳 망국의 자리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내리막길로 들어서니 역새풀 사이로 난 길이 나왔다. 역새풀 길을 걷고 있으니 영화 '서편제'가 떠올랐다. 이영미 국악지부장과 엄창용 회원의 아리랑 민요가 흘러나오며 뒤따르던 회원 모두 서편제 영화의 장면을 재현하며 즐거워하였다. 아리랑 다음 곡으로 판소리 춘향전의 사랑가도 불러주었는데 감정이 오르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재주를 선보일 수 있는 예술가의 흥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

다랑쉬 오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11시 20분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럴 수가!! 휴관이라니. 가이드와 여행사 대표는 무척 당황해 하였고 이상훈지부장과 여러 회원들도 참 아쉬워했다. 워크숍 참가자 모두 기념촬영을 한 후, 아쉬움을 뒤로 하고 11시 50분 일출봉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성산포 JC공원 바닷가로 일정을 바꿔 출발했다. 도착 후 모두들 다양한 포즈로 바닷가에서 모델들이 되어 화보 촬영을 하였다.

12시20분 제주해룡 식당에서 전복 뚝배기를 먹었다. 뚝배기 속에 전복과 게, 조개 등 해산물에서 우러난 시원한 국물과 실장님이 따라준 생수를 더하니 맛이 배가되었다. 물을 먹고 취하기는 꽤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경험해 보고 이번이 두 번째이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로 이동하여 무인카페에 도착한것이 오후 2시 20분 이었다. 여행사대표가 회원 모두에게 커피를 대접하였고 이곳에서도 예술가의 면모들이 나왔다. 카페 한켠에 있는 피아노를 장식기 회장님의 반주에 맞춰 이영미지부장의 '아리랑' 독창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잊혀진 계절' 등을 모두가 합창하였다. 커피를 마시러 온 곳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고 그것에 감동한 회원들의 모금으로 저녁에 회를 먹을 수 있는 돈이 모아졌다. 오후 3시 20분 제주동문수산시장에 도착하여 회를 사고 각자 선물할 오메기떡, 특산품, 수산물 등을 사면서 자유 시간을 가졌다. 남자 회원 몇 명은 조현건 지부장의 한턱으로 자리물회를 맛보았다. 오후 4시 40분 고기국수집에 도착하여 고기국수와 회를 먹으며 군포예총워크숍의 아쉬움을 달래고 서로에게 행복한 웃음을 마음껏 주었다.

오후 6시 제주공항에 도착하였고 티켓팅을 하고 2번 게이트에 도착하였다. 8시 출발예정이었던 비행기의 연착으로 40분 지연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밤 9시30분 시정버스를 타고 군포문화예술회관에 도착하니 10시 40분이 되었다. 제주도에서는 떠나오는 게 무척 아쉬워하며 하루 더 묵고 싶어 했는데, 군포에 도착하니 서로 빠른 작별인사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군포에 도착했을 때 뿌리기 시작한 빗방울도 귀가를 서두르게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무척 행복하고 성공적인 행사였다. 제주도라는 장소가 좋았고 홍보실의 지원도 한몫을 했다. 또한 여섯끼의 밥을 함께 먹고 1박을 하면서 군포예총 식구라는 유대감과 다른 지부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워크숍이었다. 이번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군포시청 예술팀과 이숙진국장님 군포예총 회원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앞으로도 군포예총 회원 모두 발전하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